신인 윤영철 '강철 심장투'

여유 있는 경기운영 강렬한 시즌
아쉬운 패배에도 웃음 잃지 않아
내가 가진 능력 다 보여주겠다

윤영철

KIA 타이거즈 윤영철이 신인 답지 않은 '여유'로 강렬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윤영철은 지난 6일 1위 SSG 랜더스를 상대로 시즌 9번째 등판에 나섰다. 1회 최정에게 2루타를 맞는 등 3안타와 볼넷을 내주면서 2실점 하는 등 시작은 좋지 못했다.

1회 투구수도 23개에 이르렀지만 이날 윤영철은 7이닝 6피안타 1볼넷 2탈삼진 2실점으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6회를 끝내면서 프로 두 번째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고, 7회를 마무리하면서 개인 최다 이닝 기록을 '7'로 바꾸었다. 99개로 개인 최다 투구수도 새로 기록했다.

개인 기록을 새로 만들었지만 결과는 패전 투수. 박찬호의 솔로포가 나왔고, 9회 2사 만루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경기가 1-2패로 끝났다. 아쉬운 패배가 남았지만 윤영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며 웃었다.

윤영철은 "항상 잘 될 수는 없다. 내가 잘 던져도 타자 형들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있고, 못 던졌는데 잘 쳐주는 날도 있고 그게 잘 맞아야 한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탓 할 일도 아니다"며 "상대 투수가 잘 던졌지만 승패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야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언급했다.

패전은 됐지만 7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자격을 입증한 윤영철에게는 '1회'가 숙제다. 올 시즌 1회 피안타율은 0.368, 8개의 볼넷도 허용했다.

윤영철은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에 잘 되면 다음 이닝에 올라갈 때 부담감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처음에 안 좋게 되면 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1회가 가장 힘들다. 1번부터 시작하는 타순이기도 하니까 1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다행히 어제는 1회 빼고는 투수구가 적어 이닝을 많이 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회가 고비지만 윤영철은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다음 이닝을 풀어가고 있다. 6일에도 1회를 넘긴 뒤 2·3·4회를 삼자범퇴로 풀어갔다. 특히 3회에는 공 5개로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냈다. 신인답지 않은 배짱과 여유가 비결이다.

윤영철은 "맞는 것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안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을 수는 없다. 맞을 것 빨리 맞고 하는 게 낫다"며 "1회 (신)범수형이랑 심판 체크하고 어디까지 잡아주고, 어디까지 안 잡아주는 지 가장 먼저 봤다"고 설명했다.

이제 프로 무대에 뛰어든 고졸 신인.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5월 31일 KT전 등판에서는 발등에 공을 맞는 부상도 있었다.

윤영철은 "아직까지 불편하기는 한데 던질 때 큰 이상 없어서 신경은 안 쓰였다. 맞았을 때는 별로 아픈 느낌이 없어서 한번 던져보겠다 했는데 코치님이 '다음 경기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고 해서 내려갔다"며 "엑스레이 찍고 오니까 갑자기 아팠다(웃음). 시합 하다 보면 아픈 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더 던졌으면 큰일 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부상 순간을 돌아봤다.

KIA는 앞서 한 차례 윤영철의 휴식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아직 컨디션이 좋은 만큼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

윤영철은 "코치님께서 컨디션 나쁠 때 쉬어야 좋다고, 좋을 때 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셨다. 지금 컨디션도 좋고, 좋을 때 많이 던지고 최대한 오래 좋은 컨디션 가져가는 게 좋다. 언제 페이스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며 "컨디션 안 좋으면 팔이 무겁기도 하니까 그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컨디션은 좋다. 어제도 오후 2시 경기를 처음 해봤는데 열이 많은 편이라 걱정했는데 덥기는 했지만 마운드에서 집중하니까 덥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까지 두 번 등판을 하게 되는 데 언제까지 안 던질 수 없으니까 빨리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날도 더워졌으니까 잘 쉬고, 잠도 잘 자고 시합 때는 가진 것 다 보여줄 수 있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가야 한다. 투구수 많으면 이닝 못 던지니까 투구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원 활약에 '이강인 향기'가 난다

내일 이탈리아와 U-20 준결승
이승원 1골 4도움 기록
4년 전 이강인 2골 4도움 근접

'4년 전 이강인의 향기가 풍긴다.'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2개 대회 연속 준결승 진출의 대업을 일궈낸 김은중호의 '숨은 영웅' 이승원(강원)이 4년 전 폴란드 대회에서 '최고의 별'로 뽑혔던 이강인(마요르카) 따라잡기에 도전한다.

축구는 '득점의 스포츠'다. 화려한 개인기로 골을 넣은 선수들에게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득점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숨은 영웅'들의 희생은 드러나기 쉽지 않지만 2019년 대회에서 이 공식은 깨졌고, 주인공은 이강인이었다.

4년 전 정정용호의 '막내형'으로 불린 이강인은 중원에서 뛰어난 드리블과 볼키핑 능력으로 결승전까지 2골 4도움의 기록을 남기며 한국이 준우승했음에도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이강인은 8강전과 결승전에서 각각 1골씩 넣었는데, 모두 페널티킥 득점이었다.

화려한 필드골 대신 이강인은 4차례 도움으로 한국이 결승까지 오르는 데 훌륭한 밑거름 역할을 했고, 이를 발판 삼아 FIFA 주관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골든볼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그로부터 4년 뒤 '어게인 2019'를 기치로 출범한 김은중호에서 '제2의 이강인'을 노리는 선수가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주인공은 이승원이다.

이승원은 김은중호의 캡틴을 맡아 프랑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고, 온두라스와 2차전에서도 코너킥 키커로 박승호(인천)의 헤더 동점골을 끌어내며 팀의 2-2 무승부에 힘을 보탰다.

그는 에콰도르와 16강전에서도 코너킥으로 최현석(단국대)의 헤더 득점을 도왔고, 또다시 나이지리아와 8강전에서 최현석과 호흡을 맞춰 코너킥 도움으로 헤더 득점을 연출했다.

이승원은 1골 4도움을 기록, 4년 전 이강인이 남긴 공격포인트 6개(2골 4도움)에 1개 차로 따라붙었다.

특히 이승원은 김은중호가 따낸 8골 가운데 무려 5골에 관여하며 '숨은 영웅'으로 주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은중호는 9일 오전 6시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에서 '빗장축구'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러 2개 대회 연속 결승 진출의 대업을 노린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면 이승원은 가장 유력한 대회 MVP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

다른 4강 대진은 우루과이와 이스라엘의 맞대결이다. 8강전까지 우루과이와 이스라엘 선수들 가운데 2골 이상 넣은 선수는 4명(우루과이 3명·이스라엘 1명) 정도다.

현재 이번 대회 득점 선두는 4강에서 한국을 상대하는 이탈리아의 체사레 카사데이(첼시)로 6골(페널티킥 2골 포함)을 넣었다.

김은중호가 이번에도 이승원의 공격포인트를 발판 삼아 이탈리아를 넘어 결승에 진출한다면 한국 축구의 2개 대회 연속 대회 MVP 배출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주인공은 이승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승원

이강인, 대표팀 합류 귀국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이 시즌을 마치고 6월 중 두 차례 예정된 평가전을 위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인 최초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한 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하고 드리블 성공 횟수 리그 공동 2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했다. /연합뉴스

PGA 투어·LIV 골프 공동법인 설립 '합병'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가 출범 1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합병한다.

PGA 투어와 PIF, DP 월드투어(옛 유러피언 투어)는 7일 "골프라는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 세 단체는 "LIV 골프를 포함한 PIF의 골프 관련 사업적 권리를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의 사업 권리와 결합해 새로운 공동 소유 영리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며 "새 법인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경쟁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대회를 연 LIV 골프는 PGA 투어, DP 월드투어와 손잡고 한배를 타게 됐다.

이번 전격 합의로 PGA 투어와 LIV 골프가 '원수'에서 '동업자'로 변신하면서 양분했던 세계 남자 골프계는 다시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PGA 투어와 LIV 골프는 그동안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 PGA 투어와 LIV 골프의 올해 남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WBC 음주 파문' 김광현·이용찬·정철원에 벌금

KBO 상벌위 징계 확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에 음주해 논란을 빚은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KBO는 7일 서울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세 선수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김광현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원, 이용찬과 정철원은 사회봉사 40시간과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은 상벌위에 직접 참석해 '음주 파문'을 소명했다. 세 명 모두 소명을 마친 뒤 "거짓 없이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다"며 "상벌위 결과를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